

# 자운 스님 기념세미나 열린다

###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4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 한국불교 울먹 살린 행적

#### 근·현대 계율수행 폭 넓게 조명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인 자운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 세민, 원로의원은)는 4월 1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前 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의 ‘율풍 진작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의 행적’, △허홍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대승보살계 흥포와 무성계첩의 재흥’, △前해인사승가대학장 범진 스님의 ‘유교범화 정신의 계승과 봉암사 결사·해인총림 도량에서의 역할’, △前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

님의 ‘선정을 일치의 수행문을 열다’ △前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의 ‘참법 수행과 예찰 의례의 유통’, △前해인총림을 원장 해능 스님의 ‘삼밀을 엄정히 수행한 문수행자’ 등이 발표된다.

기념사업회 대표 세민 스님은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의 울먹을 이어 받아 근세 한국불교 울풍을 크게 진작한 종단의 큰 스승”이라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종단의 고승대덕과 사부대중께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자운 성우(慈雲 盛祐) 스님은?

### 자비도량참법 등 참회계몽 펼쳐

### 범망경 등 번역·율풍 진작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자운 스님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7살 때부터 진부서당에서 《동몽선습》을 배우기 시작하여 15살에 서사삼경을 모두 익혔다고 한다.

어느 날 오대산에서 고향 마을에 탁발(托鉢) 나온 혜운(慧雲) 스님에게서 ‘백년삼만유천일(百年三萬六千日)이 불금승가 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이라는 순치(順治) 황제의 출가시(出家詩) 한 구절을 들어 출가 발심한다. 1927년 1월 자운

스님은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3000배 후 해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32년 동래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과(大敎科)를 졸업하고 율진 불영사(佛影寺)에서 3년 결사에 입한다. 1938년 용성 스님에게 입실해 범종을 전해 받고 제자가 됐다. 자운 스님은 청담(淸潭)·성철(性徹) 스님 등과 함께 문경 봉암사에 특별 수도도량을 설립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3년 결사에 입한다.

자운 스님은 또 불교전통을 중흥하려는 원을 세운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에서 1939년 4월 15일부터 일백일간 문수(文殊)기도로 철야정진했다.

이후 감로계단(甘露戒壇)을 설치하여 율문을 강설하는 한편, 출가자의 수행이

나 재가자의 신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앞서야 한다는 〈자비도량참법〉을 간행해 참회정진 수행을 권장하고 토착화시켰다.

또한 한문본 〈범망경〉(法網經), 사미율의(沙彌律儀),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비구계본(比丘戒本), 비구니계본(比丘尼戒本) 등을 번역하고 5만여 권을 간행해 계율 체계가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한다.

1955년 합천 해인사 주지, 1956년 재단법인 해인학원 이사장에 이어 1957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60년 5월에는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 불교승가연합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1967년 부산 동래 범어사 주지를 비롯해 1975년 조계종 규정위원장, 197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3월 조계종 원로(元老)에 추대됐으며, 1977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1979년 동국대총장,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계종 단일계단(單一戒壇)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尚)을 역임했다.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자운 스님에게 수계받은 제자들은 10만명에 달한다. 자운 스님은 평생을 오후불식하며 한국불교의 기강 확립과 승승 진작에 앞장섰다.

자운 스님은 1992년 2월 7일 해인사에서 ‘眞性圓明 本無生滅 木馬夜鳴 西方日出(진성원명 본무생멸 목마야명 서방일출)’이라는 임종계(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했다. 저서로는 〈보살현감 菩薩玄鑑〉·〈제경정화 諸經精華〉·〈정토법요 淨土法要〉·〈연종보감 蓮宗寶鑑〉·〈수계 의식 受戒儀式〉 등이 있다.

## 한국불교학회, 탄허 사상 학술대회

### 4월 26일 ‘인재양성과 교육이념 시대 정신’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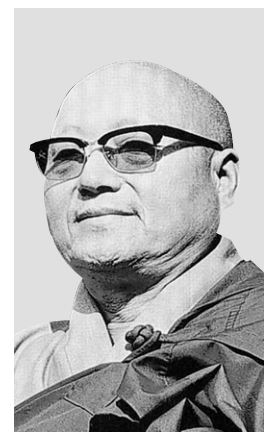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 대중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는 월정사와 함께 2012년에도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용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탄허 대중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동국대 교수 자현 스님이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 △윤선대 동국대 교수의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화활동’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을 △이원석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가 ‘탄허의 구도 민족의식 성장과 출가의 궤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탄허의 경전번역과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탄허의 주역선해와 노장번역’ 등이 발표된다.

이 밖에 원로의원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등의 축사와 회고 등도 진행된다.

탄허 스님은 1913년 독립운동가 김홍구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가 지 유학을 공

부했다. 17세에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1934년 22살에 오대산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만나 출가했다. 유불선 사상에 두루 통달했던 탄허 스님은 1955년 월정사 조실로 추대됐으며 1956년 오대산 수도원을 설치하고 교육결사를 일으킨다. 스님의 강연에는 함석헌 선생부터 양주동 박사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사상가와 학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1961년부터 10년에 걸쳐 〈화엄경〉 80권을 집필했는데 탄허 스님이 번역·주석해 집필한 원고지는 6만 2500여 장을 헤아렸다. 탄허 스님은 1983년 법랍 49세로 월정사 방산골에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 학술 · 문화재소식

### 인도철학회, ‘봄와 해탈’ 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4월 12일 오전 10시 ‘고와 해탈’을 주제로 서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찬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과 이지수 인도철학회 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재성 마하비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의 ‘초기 및 테라와다 불교의 고와 해탈’ △백도수 금

강대 교수의 ‘초기불전에 나타난 고의 내용과 해탈관계에 대한 고찰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세속의 눈으로 궁극의 경지 비추기 - 유식 불교에 나타난 ‘상징’과 ‘비유’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준보 원광대 교수의 ‘쉬바와 일월론의 자아론 연구’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생사에 대한 불교 판트리즘의 과제’ △김재권 동국대 교수의 ‘임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독립연구단 1주년 세미나...주제 ‘분류’

고등과학원 초학제독립연구단(단장 박창범)은 4월 18-19일 서울 고등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독립연구단 창단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환 독립연구단 연구책임자의 ‘초학제 연구 - 분류, 상상, 창조’ △이태수 인제대 석좌교수의 ‘인도유럽어의 언어구조와 서양적 분류방식의 상관성’ △심경호 고려대 교수의 ‘한문과 한글의 언어적 구조와 동아시아적 분류

방식의 상관성’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불교의 인과론과 분류’ △김준성 명지대 교수의 ‘화물인과론과 분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분류, 그리고 통합의 방법론을 위하여’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의 ‘초학제 연구 - 분류, 상상, 창조’ △이태수 인제대 석좌교수의 ‘인도유럽어의 언어구조와 서양적 분류방식의 상관성’ △심경호 고려대 교수의 ‘한문과 한글의 언어적 구조와 동아시아적 분류

# “승려, 조선시대 천민 아닌 특수계층”

###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조선시대 천민 계층으로 평가받았던 승려계층이 특수계층이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3월 16일 서울 법연사에서 개최한 제102차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사진)은 ‘조선시대 승려 천민신분설의 재검토 - 법전(法典)분석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조선시대 승려는 단일 신분층이 아니라 복합적 특수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이날 “조선시대 법전 및 실록, 호적 등을 살펴보면 승려가 천민으로 천시받았다는 승려천민설의 근거가 없다”며 “승려들은 단일 신분층이 아니라 하층에서 상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층이 포함된 복합적 특수계층으로 시기에 따라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조선 초기 승려체제가 법

제적 관료층이며 도첩승은 합법적 면역층이었음을 예로 들었다. 또 조선 후기 승려 일부는 체계적인 강학, 시문 교육, 문집 편찬 등을 통해 학자들과 교유를 나눴음을 들었다.

손성필 연구원은 승려천민설이 조선시대 이후 팽배한 이유에 대해 일제 강점기 연구가 조선시대 승려 지위를 팔천의 하나로 본 점과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가 적었음을 들었다.

손 연구원은 “호적 등에서 승려 위상의 하락 경향이 드러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본격화 된다”며 “식민통치 과정에서 조선불교의 사회적 무능론 차원에서 포교권 국가탈취설(布敎權國家奪取說), 승려무지설(僧侶無知說), 무종파설(無宗派說), 부녀자서민신앙설(婦女子庶民信仰說) 등이 대두됐다”며 비판적 재검토를 말했다.

### 조선초기 법제적 관료층

### 조선후기 문인·학자 역할

### 관부문서에도 고승 따로 분류

손 연구원은 조선시대 사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찬사서, 법전, 호적, 불교저술, 간행물전, 승려문집, 고승비 등을 재조명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17세기 중반인 조선 효종대 작성된 관부 문서를 토대로 당시의 불교정책을 고찰했다.

이종수 교수는 ‘1652년 관부문서(官府文書)’를 통해 후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관부에서 고승류, 선승류(善僧類) 등 구분이 되는 승려 계층과 아닌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조선 후기 중국 불서(佛書)의 유입과 사상적 영향’을 통해 조선 중후기에 승려문집, 불서, 진언적, 의례적 사책, 승려 교육, 사기 저술 등 불서간행과 교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이후 이를 계승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길, 불자들이 중생들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기금 구멍이 마하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열되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매듭을 끼웁니다. 다시 마강염주 염주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게두고 모주의 마강염주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게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기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헝겊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기법계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66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